보도자료 Press Release

대구기상대 Daegu Weather Station

배포일시	2013. 11.21. (목) 10:00 (총 3 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 당 자	대장 이 명 수	전화번호	053-952-0366

【 절기 기후정보 : 소설 (小雪) 】

□ 소설

○ 소설의 의미

24절기 가운데 20번째 절기로 양력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이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후 15일,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 전 약 15일에 해당되며,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고 한다.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 라는 속담이 전할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 소설 무렵의 날씨

이 시기에는 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 채비를 한다.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여 겨울 기분이 나면서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므로 소춘(小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는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추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소설에 관련된 속담**

- "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 "

소설은 날씨가 급강하 하는 계절이다. 이미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위한 잔일을 하는 시기이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김장을 하기위해 서두르며, 살얼음이 어는 시기이므로 시래기를 엮어 달거나 무말랭이나 호박, 곶감을 말리기도 한다. 또한 목화를 따 놓거나 소 먹이로 쓸 볏짚을 모아두며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 **소설에 부는 바람 '손돌바람'**

고려 혹은 조선시대에 왕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피난을 가던 때에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왕을 모시고 뱃길을 서둘렀지만 왕이 보기에 자꾸 위험한 곳으로 유인한다고 오해하여 결국 손돌을 참수하였다. 손돌은 죽기 전에 바가지 하나를 물에 띄우고 바가지를 따라 갈 것을 권하였다. 바가지는 세찬 물살을 따라 흘러갔으며, 왕이 탄 배는 이 바가지를 따라가 결국 화를 면하였다. 이후 왕은 죽은 손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묘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

이 때 왕이 지났던 좁은 물길을 손돌목, 이 날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 이 날의 추위를 손돌 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 올해 소설(11월 22일)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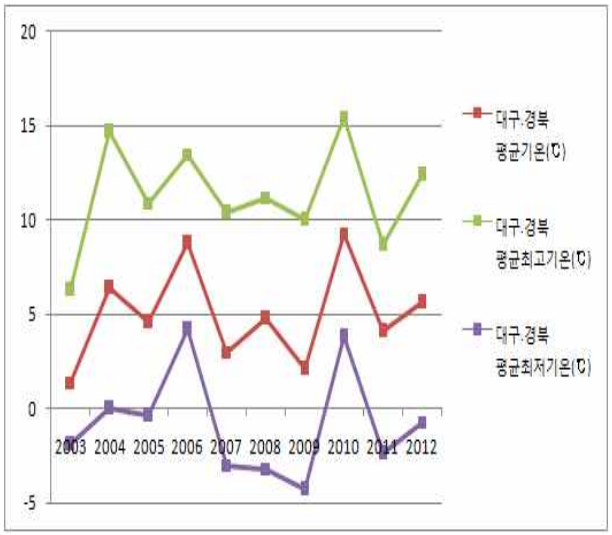
○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상북도는 맑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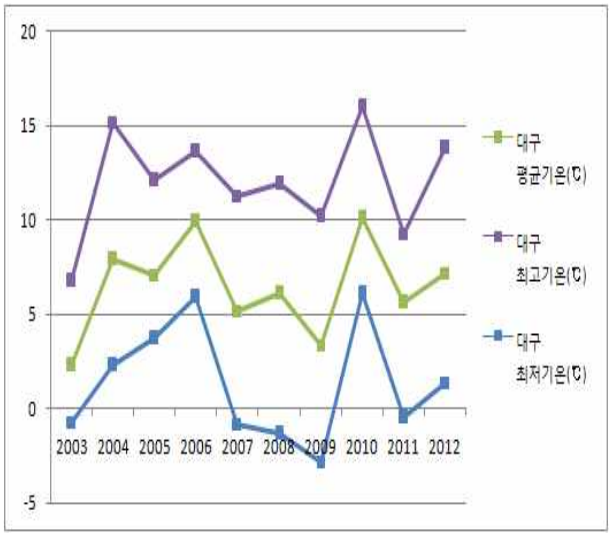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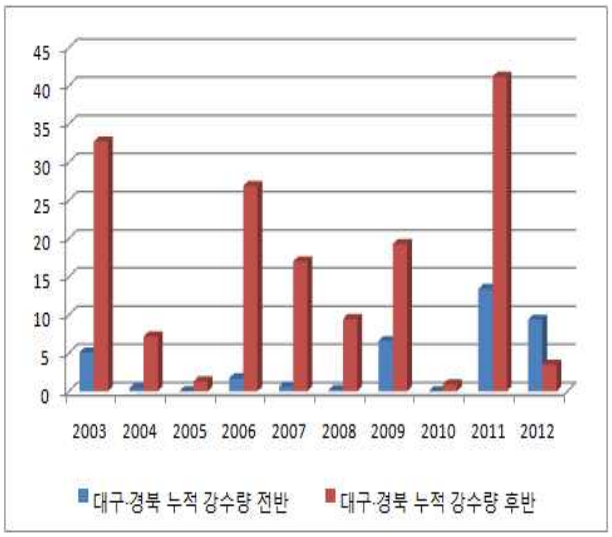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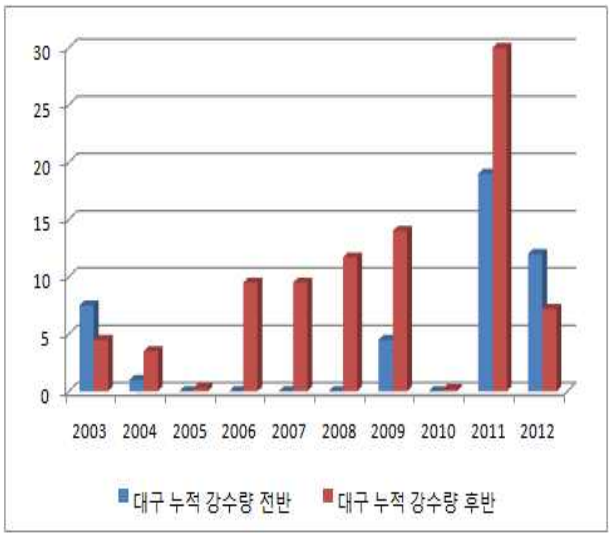
○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2도에서 영상2도, 경북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13도, 경북 10도에서 13도가 되겠음.

○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음.

□ 최근 10년(2003 ~ 2012. 11. 22.)간 소설 기온과 일강수량

○ 기온변화 경향





○ 누적강수량 변화 경향